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8, pp.451-463  
<https://doi.org/10.29212/mh.2023..122.45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 [서평] 전쟁 속 지워진 존재들과 남겨진 군사적 연계

- 후지와라 가즈키, 박용준 역, 2023,  
『한국전쟁에서 싸운 일본인: 일급비밀 공개로 드러난  
일본인의 한국전쟁 참전 기록』, 소명출판 -

김보운\*

1951년 시작된 정전회담 중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의제로서 포로 교환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공산군 대표에 의해 6·25전쟁 속 일본인의 존재가 언급된 바 있다. ‘불법적인 존재’로 지칭되어 전쟁의 서술에서 밀려나 있던 6·25전쟁 속 일본인은 후지와라 가즈키의 저서를 통해 개별의 이야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의 서술은 1,033쪽의 비밀 해제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소장 문서, 재일병참사령부의 전문 교신에서 시작되었다. 단순히 자료를 정리만 한 것이 아니라 전선의 이동에 따른 미군 부대의 이동 확인, 참전한 일본인을 기억하는 미군과 한국군의 인터뷰, 심문받은 일본인 및 그 가족의 추적과 인터뷰를 전개하며 교차 확인한 끝에 개별 참전인의 생애를 복원하고,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6·25전쟁의 서술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한 조각을 주조했다. 후지와라 가즈키는 인터뷰 당시 98세였던 백선엽을 만나 일본군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가 인터뷰한 대부분의 참전 일본인 및 미군은 90대였고, 이미 사망한 사람도 많았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후지와라 가즈키는 조사원까지 동원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취재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6·25전쟁에 일본인이 참여하게 된 다양한 경로와 배경, 지위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쟁 과정과 일본 및 중군일본인에 발생한 사건을 연표로 정리하여 비교한 작업은 서술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일본 정부와 미군의 입장, 한국군의 기억 등 일본인의 전쟁 참여를 둘러싼 다양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식적인 참전국도 아니었고, 또한 1950년 전쟁 발발 당시 유엔군 점령하에 있던 ‘비주권국가’이자 1947년 이른바 ‘평화헌법’에 의해 참전할 수도 없었던 일본이 구 식민국의 전쟁에서 다시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 책이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전쟁의 본질과 더불어 한반도 분단을 이해하는 데 일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지워진 사람들’의 이야기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의 내용은 6·25전쟁에 참전한 일본인의 상황과 일본 정부 및 미군과의 관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제1장 1,033쪽의 극비 심문 기록’은 일본인이 참전하게 되는 전반적인 배경과 구성원의 성격, 경험을 설명

한다. ‘제2장 대전전투: 후쿠오카에서 한반도로 향한 사나이들’은 개전 초기 북한군의 남하를 억지하기 위한 전투로서 대전전투에서 확인된 일본인 기록을 서술한다. 공식적인 전투병으로 한국에 간 것은 아니지만, 일본인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전하게 되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통역, 취사병, 하우스 보이 등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들이 총을 잡게 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였다. 그들은 ‘전장이었고,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제3장 고아들은 미국을 동경했다’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일본인들 대부분 미군기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조명하며, 이들 중 1945년 종전 과정에서 고아가 된 일본인들에 주목했다. 피난 과정에서든, 원폭에 의해서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생계를 위해, 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다. 20세 전후의 나이대가 가장 많았던 참전 일본인 중에서도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6·25전쟁에 참여하게 되며 전쟁을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서술되었다. ‘제4장 그들은 왜 이용되었는가: 일본, 미국, 한국의 의도’는 개인의 전쟁 경험이 국가의 전략과 정책하에서 해석되고 활용되었을 뿐 개인의 지위가 인정되거나, 존중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제5장 평화헌법 하 해상수송: 선원들의 전후사’는 6·25전쟁을 지원하는 데 민간인도 동원되었으며, 이것이 ‘평화헌법’하에서 정당화되었음을 서술한다. 이들이 임무 중에 사망했음에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았고, 사망자들의 출신지인 가나가와현이 위령제를 지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제6장 어느 일본인의 전사’는 전쟁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그 지위를 부정당했던 한 일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밀항자’이자 ‘위장자’가 된 일본인 참전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가족들의 투쟁과 그 근거를 확인해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장에서 중점적으로 서술되는 사례가 있지만, 여러 장에 걸쳐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사례도 있다. 저자는 심문 문서에서 확인되는 일본인을 추적하며 본인에 대한 인터뷰와 더불어 그 가족들의 인터뷰, 이들을 기억하는 미군의 기억을 함께 구성한다. 이는 사실 확인을 위한 교차 검토의 역할도 했지만, 한 개인의 심성과 감정을 발견할 수 있는 작업이었다. 전쟁에 참전하기 이전에 그들이 품었던 보상에 대한 기대, 이전 전쟁에서의 경험, 동료들에게 베풀었던 친절과 전후의 죄책감은 국적을 떠나 그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투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던 개인의 인생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들을 독택(dog tag, 인식표)도 없이 파견되어 숨겨지고, 결국은 ‘최고 기밀’이 되어 지워진, “대문자의 역사에서 밀려난” 존재라고 평가하며 온정적인 시각으로 그 인생을 추적한다. 그렇게 개인의 꿈과 인간관계 등이 복원되면서 그들의 전쟁 경험은 근본적으로 누군가는 ‘운이 좋게’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시간에 살고 있으므로 경험하지 않을 뿐일 불행이라고 이야기한다.

## 2. 전쟁의 또 다른 기억의 발견과 한일 연계 인식의 시각 확대

후지와라 가즈키는 6·25전쟁에 참전한 주체를 일본인으로 확대하며 전쟁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을 발견한다. 이는 한국에서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억이었다. 저자가 대전은 “카오스였다”는 참전 일본인의 경험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난민을 죽였다”라는 전직 미군 병사의 증언을 채록하게 된 것이다.

이 미군 병사는 1950년 7월 금강 부근에서 북한군의 협공을 당했을 때 극한의 상태에서 선택을 강요받아 민간인에게 사격을 가했다고 증언했다. ‘노근리 사건’에서 밝혀진 것처럼 피난민 가운데 북한군 게릴라가 잠입해 있다는 정보가 학살이 일어난 요인 중 하나였다. 이 미군 병사의 증언은 발생 시점은 비슷하지만, 부대와 장소가 달랐기 때문에 ‘노근리 사건’으로 해석될 수 없다. 확인되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가능성은 6·25전쟁과 관련하여 직접적 당사자이기도 한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음을 제시한다. 일본인 포로의 북한 수용소 경험도 전쟁의 기억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조각이다.

6·25전쟁에 참전한 일본인들의 경험은 전쟁에 대한 기억 공유와 더불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한·일 간 군사적 연계를 보여준다. 후지와라 가즈키는 일본인의 6·25전쟁 경험을 하나의 ‘전후사’라고 평가한다. 보통 일본에서 ‘전후’란 태평양 전쟁 이후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저자는 패전 이후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6·25전쟁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 역시 제1장에서 6·25전쟁이 일본에 알려지게 된 배경을 서술하며 시작한다. 6·25전쟁이 끝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본이 한반도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미군기지의 섬’이라고 자조하며 설명하듯 주일미군에 의한 공간적, 군사적 제약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인식한다. 역시 이 책에서 서술한 것처럼 실제 6·25전쟁에 대한 일본의 개입 역시 미국과 일본의 점령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인천 상륙 작전 이후 원산 상륙 작전을 시행하기 위해 미 극동해군사령부가 일본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을 때 일본 내에서도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승인하게 된 것이었

다. 일본 국내에서 제한된 재군비를 승인하는 것이 화평조정에 합의하는 조건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인식은 중군 일본인의 죽음에 대한 대응에서도 확인된다. 미군 당국은 페인트공이었던 히라쓰가 시계하루가 한국에서 “전사”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유엔군으로 변장하여 밀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이 항의하자 일본 정부는 “미군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삼가는 조건으로 유족을 구제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라며 보상을 결정했다. 그 이유도 미국과 관련이 있었는데, 유족들이 “생계의 길을 잃고 궁핍함이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으로 “반미 분자의 책동에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 정부는 6·25전쟁에 대한 개입과 이후의 처리까지 미·일 관계 속에서 일본의 지위를 고려하며 결정했다.

무엇보다 1950년 7월 24일 도쿄에 창설된 유엔군 사령부는 현재까지 6·25전쟁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을 연계시키고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1950년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에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결의 제84호를 시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 유엔군 사령부는 1957년 용산으로 이전되었고, 현재 평택 팽성읍 안정리의 캠프 험프리스에 있다. 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위임한 상태이며,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를 유엔군 후방기지로 설정하여 한반도 위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020년 당시 도쿄 유엔군 후방지원사령부에는 오스트레일리아 공군 대령과 캐나다 및 미국의 부사관 3명이 상주하고 있었다. 다국적군으로서 유엔군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 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의 서언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1954년 제네바 회담에서 6·25전쟁이 '잊힌 전쟁'이 되어버리고, 1972년 이후 전개된 몇 차례의 남북 간 대화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서언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서언에서 협정의 명시적 당사자로서 유엔군, 조선인민군, 중국인민지원군이 동의한 바에 따라 정전협정의 조항에 따른 제약과 통제를 받는 이른바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 3. '아메리칸드림'과 생계, 미군 기지 경험의 공유

6·25전쟁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상 한국과 일본이 미군의 군사기지 네트워크 속에서 안보를 분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공통의 체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미군기지와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실제 전쟁에 참전한 일본인은 미군 기지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6·25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에 장기 주둔하며 형성된 민군 관계와 공통점을 갖는다.

심문 기록에 의하면 종군 일본인 대부분은 일본에 거주할 때 점령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부서관 등의 집에서 가사 등 잡무를 맡은 하우스 보이 또는 KP(Kitchen Police) 등 기지 노동자였다. 이들이 기지에서 일하게 된 것은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의 경제적 빈곤 때문이었다. 특히 전쟁고아면 생계를 위해 기지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으로 부모를 잃은 하루야마 요시오의 사례가 그렇다. 다만

그는 전쟁 발발 이후 한국에 간 것은 아니었다. 심문 당시 13세였던 하루야마는 1945년 제54헌병중대에서 일을 하며 “마스코트”가 되었고, 이듬해 중대를 따라 인천으로 이동했다. 1947년 제54헌병중대가 한국을 떠나자 인천에 있는 제55헌병중대로 이동했고, 2개월간 행동을 같이한 뒤 주한미군사고문단에 합류했다. 저자는 마스코트에 대해 “귀여움을 받고 팁 등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듯하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런데 크리스틴 홍(Christine Hong, 2020)의 서술을 참고하면 그 의미를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즉 전쟁 하 미군은 어린이를 구제하며 전쟁에 대한 미군의 시혜적, 인도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루야마가 기억하는 ‘마스코트’는 미군 스스로가 점령군으로서 일본인에 대한 시혜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하며 언급했던 단어였을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군 기지가 고아를 ‘거두어들인’ 것처럼 실제로도 미군기지는 전후 일본인의 생계가 되었고, 기지에서의 경험은 ‘아메리칸드림’을 이루는 경로로 활용되기도 했다. 취사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던 다카스 겐조의 진술에서처럼 일본인 중에는 “조선에 가면 미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많았다. 물론 다카스의 ‘아메리칸드림’은 이미 태평양 전쟁하 전쟁의 피해를 본 개인보다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이 우선되는 경험 속에서 국가에 대한 ‘배신’을 느끼며 형성되었다. 6·25전쟁에 참전하려면 존재를 숨기고 사실상 밀항해야 했지만, 그 최종적 목적지는 미국이었다고 증언한 참전 일본인도 있었다. 곤궁해진 일본으로부터 도망쳐 나오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북한 포로수용소에서 송환된 쓰쓰이 기요히토는 송환 이후 일본에서의 비판과 정부의 심문 끝에 미국행을 택하기도 했다. 이때 그의 미국행과 거주를 도운 것은 함께 포로 생활을 했던 미군



장교들이었다.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비행병 학교에 입학하여 참전했던 그는 전쟁 중 “미국, 이 새끼들”이라며 증오심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전후 미군기지에서 일하며 6·25전쟁을 경험한 이후에는 미국에서 엔진 공학을 배워 기술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갖게 되었다. 그는 미국 체제 연장을 위해 미군에 입대했고,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다.

한편, 우에노 다모쓰의 경험에서처럼 미군기지에서 일하며 “패전국 일본에는 없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아메리칸드림’이 형성되는 일도 있었다.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기지에서 일했다.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던 것도 미군에 의해 한국으로 동행하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었고, 이는 기지에서의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기도 했다. 미군 기지 내에서 일본인은 윌리, 네오 등 미국식 이름으로 불렸다. 6·25전쟁 시 일본인임을 내세우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부터 그렇게 불렸으므로 미군의 편의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지와라 가즈키는 “많은 일본인이 미군에게 구제되었고, 태평양 전쟁 중에 깊이 새겨진 ‘상처’를 품은 채 한국전쟁에 나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서술했다. 하지만 사실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일부 위정자가 시작하고 끝낸 전쟁의 뒤에도, 시중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역사를 살아갔던 것”이라며 미군 기지에서의 노동이 미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다시 사람들을 전쟁으로 인도하였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미군기지의 경험과 미군 정책과의 연계는 6·25전쟁 이후 한국에서도 확인된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며 전국적으로 장기간 주둔하게 된 미군은 물리적 공간을 점유하며 기지 주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전후 갈 곳을 잃은 피난민과 기지가 확대되며 거주할 곳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미군기지는 새로운 생계 수단이 되었다. 미군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비롯하여 유흥업, 상업 등 미군의 소비를 매개로 한 업종이 기존의 농업을 대체하였고, 기지 주변의 도시화를 촉진했다. 특히 미군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은 미군기지에 소속된 고용인이라, 현지인으로서 미군의 기지 운영 정책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는 안정적인 기지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민정책이었다. 이러한 민군 관계의 양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주둔 미군 기지와 그 주변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전후 경제적 이유로 미군 기지에서 일하기를 선택했던 일본인들처럼 미군기지를 매개로 다시 전쟁에 참전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기지에서 일하며 미군의 정책에 동원되었던 점에서 한일 간 미군기지의 경험이 공유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군기지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동아시아 지역 안보 분담과 미군 주둔 경험을 공유한 한국과 일본의 통합적 역사 인식과 비교 연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 4. 전쟁의 연속적 이해와 공백

그리고 군사적 연계는 한국과 일본으로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 대한 일본의 전쟁 지원은 6·25전쟁에 이어 베트남 전쟁으로, 이후 이라크 전쟁으로 이어졌다. 저자는 ‘평화헌법’하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해외 전쟁 개입을 우려한다. 전쟁을 경험한 참전 일본인의 기억과 발언을 서술하며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전달하는 듯하다. 심문 속에서 “다시 한번 한반도

에 가고 싶다”라는 질문에 참전 일본인은 “아닙니다.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미래의 중핵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경찰에 비대대 입대도 종군자들은 희망하지 않았다. 전투에서 무기를 전달받고 몇 번이나 “이렇게 죽는구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6·25전쟁에서 돌아온 아리요시 다케오는 1965년 종군기를 작성하여 잡지에 기고하였는데, 베트남 전쟁이 진행 중인 시기였다. 저자는 이 수기의 마지막 문구를 제시하며 전쟁의 무의미함을 전한다.

“그로부터 15년, 이번엔 베트남에서 남북 항쟁의 전투가 격렬하게 치러지고 있다. 같은 민족이 서로 죽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조리하다. 내 경험으로 추측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하루라도 빨리 베트남에 평화가 오길 기원한다”

전쟁의 경험과 해외 전쟁에 대한 연루의 우려는 베트남 전쟁 시기 일본 내 반전 여론으로 이어졌다. 베트남 전쟁 시기 반전 여론은 일본 내 미군기지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6·25전쟁에 참여했던 일본인들이 일본의 국가 지위와 미국의 정책에 따라 지위였던 것처럼 베트남 전쟁에서 전쟁에 개입한 일본인들은 여전히 “법률의 틈새에 끼인 존재”였다. 물자 수송에 참여했던 선원들은 미군에 의해 직접 고용되면서 국내 납세 의무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월천징수 당했으며, 미군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고용도 보장받지 못했다. 베트남전에서 해상수송을 담당하며 참전했던 산노미야 가쓰미는 스스로에 대해 “국가가 편한 대로 이해하는 거야”라고 회고했다.

산노미야는 6·25전쟁에도 참전하였는데, 일본 정부가 ‘이라크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며 자위대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헌법을 위반한다며 소송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대한 파견이 ‘비전투 지역’에 한정한다고 하였지만, 산노미야는 ‘전장에서는 최전방도 후방도 구별이 없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다. 그는 1926년 일본 통치하에 있던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 해상수송을 담당하기도 했다. 전쟁 중 해상수송은 그 중요도만큼이나 위험부담이 높은 업무였다. 즉 태평양 전쟁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전쟁의 연속적 경험은 전쟁 개입에 대한 반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전쟁에 대한 참상은 국군의 기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무조건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후지와라 가즈키의 작업은 개인이 경험했던 전쟁의 참상을 복원하며 이러한 희생이 일본의 대미 의존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역사를 응시하며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바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책을 마무리했다. 후지와라 가즈키의 문제의식은 현재 한국의 분단 상황과 남북 갈등에 비추어 고려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한다. 하지만, 분단과 6·25전쟁의 역사적 출발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6·25전쟁에 참전한 일본인의 존재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실제로 저자는 한국인들이 일본 식민 지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일본의 협력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즉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의 반발심을 그 원인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6·25전쟁은 19세기 팽창된 제국간 식민지 경쟁의 결과이다. 근본적으로 전쟁의 배경이 된 분

단과 미·소 분할 점령은 결국 식민지 경쟁에서 패한 제국의 잔상이자, 승리한 패권국의 전리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번역자는 후기에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는 또 다른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역사 속의 일본인들에 대한 평가마저도 가로막고 있다”라고 서술했다. 이 책을 통해 한·일 간 군사적 연계와 경험의 공유를 확인한 것처럼 6·25 전쟁과 관련하여 채워 나가야 할 공백으로서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차이와 이해의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다.

